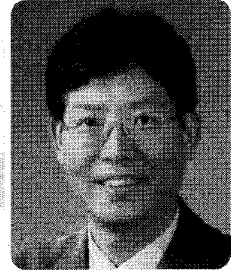


【특집 II : 구제역 종식 이후 재건 시스템】

구제역 종식 이후의 한우산업 안정화 프로그램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의 국내 쇠고기시장 상황과 한우산업의 현 주소는 한우농가에게 있어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이어, 구제역 6개월이 남긴 흔적은 한우산업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 놓았다.

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라는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가격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이어오던 한우가격은 구제역사태 발생 이후 단기적으로 수년 이래 가장 큰 폭락을 경험하였다.

또한 구제역 종식 이후에도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었던 한우가 급격히 시장에 나오면서 한우가격은 경영비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한우산업은 구제역이라는 직접적 피해에 더해,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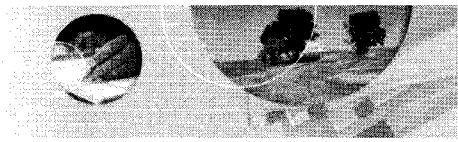
특히 구제역으로 태생한 축산업 선진화대책은 방역시설 구비, 사육시설 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FTA 국회비준과 확대를 앞두고, 한우산업은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한우산업의 기반 재구축과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빠른 시간내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1. 구제역이 남긴 여파

2010년말 시작된 구제역이 장기화 되고 경북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전국의 11개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한우농가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격변을 치러내야 했다.

구제역이란 축산업 최대의 재난의 소용돌



◇ 구제역 발생현황 : 11개 시·도 75개 시·군표 19

구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75개 시군	1	1	3	1	1	19	13	8	10	16	2

◇ 가축 살처분 현황 : 한우 살처분두수는 115,000두 추정

시·도	발생농가	살처분 두수				
		계	소	돼지	염소	사슴
전국	6,250호	3,479,513	150,871	3,317,864	7,535	3,243

이 상황에서, 2011년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전세 값 폭등과 물가상승의 여파 속에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층이 늘어나는 격변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 해보다 한우의 소비 위축을 심화시켰으며, 한동안 주춤했던 저가의 미국산 수입육의 빠른 시장 잠식을 허용하였다. 또한 구제역 사태에서 발생한 소와 돼지의 매물에 따른 환경문제가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소비

를 더욱 위축시키고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절하시키는 상황도 발생시켰다.

1) 한우 가격의 변화

최근 6개월간 큰소(600kg) 한우 산지가격은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10년 평균가격 대비 30%이상 하락하였다.

한우산지가격은 2001년 수입자유화와 2000년, 2002년 구제역 발생, 2003년 광우병 파동, 2006년 FTA협상, 2007년 미국산쇠고

◇ 연도별 한우 산지가격

(단위 : 천원)

연도	큰암소	큰수소	암송아지 (4~5개월)	수송아지 (4~5개월)	암송아지 (6~7개월)	숫송아지 (6~7개월)
2009	5,036	4,385	1,788	2,072	2,125	2,438
2010	5,248	5,337	2,174	2,402	2,368	2,610
2011.4	4,383	3,668	1,956	1,924	2,210	2,179
2011.5	4,106	3,804	1,796	1,817	1,984	1,989
2011.6	3,774	3,203	1,643	1,743	1,838	1,879
2011.9	3,752	3,125	1,446	1,785	1,638	1,890

※ 자료 : 가축통계(농협중앙회, 통계청)

◇ 전국 소 도체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현황

(단위 : 원)

구 분	등급						
	1++평균	1+평균	1평균	2평균	3평균	D	전체
2009	19,465	17,673	16,431	14,167	11,176	5,378	15,782
2010	20,287	17,914	16,199	13,380	11,445	6,607	15,948
2011.3	16,998	14,789	13,277	10,802	9,041	5,677	12,988
2011.6	15,771	13,540	12,173	9,722	7,140	3,724	11,756
2011.9	16,745	14,985	13,692	10,659	7,724	4,820	12,898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기 수입재개의 영향 속에서도 10%이내의 가격변동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2008년부터는 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한우의 생산비가 상승하였지만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생산이력제 정착에 따른 유통의 투명화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꾸준한 한우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지가격의 안정세를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의 큰소 가격은 지난 98년의 IMF 터널을 지나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 산업의 붕괴를 걱정하던 시기의 가격에 근접해 있다. 큰소 가격에 비해 다소 늦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송아지의 폭락도 시작되고 있다.

송아지 가격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한 기대 심리인지 모르지만, 165만원인 안정제 기준가격 수준에서 유지되고는 있으나 기준가격 이하의 붕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아지 가격 하락이 큰소에 비

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농가의 입식과 농촌에서 그나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한우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타축종에서 한우로 전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우가격 하락의 지속적 경향은 한우 경락가격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구제역이 종식되면서 이동제한에 묶였던 소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부터 한우가격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설 명절 이후 소비가 둔화되는 시기에 구제역으로 출하가 연기된 소들이 일시에 출하되면서 경락가격의 하락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는 6월 한우지육 경락가격 평균이 11,756원으로 2010년말 15,948원에 비해 26.3%의 가격 폭락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격은 한우생산 경영비(지육 평균 12,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한우 사육으로 인한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우육 사육마리수와 사육호수

(단위 : 천마리, 천호)

구 분	'08.12	'09.12	'10.6	9	12	'11.3	6	9	
사육호수	181	175	175	175	172	171	171	168	
총 사육두수	2,430	2,635	2,889	2,949	2,922	2,881	3,053	3,044	
한우	총 두수	2,269	2,477	2,734	2,788	2,762	2,734	2,905	2,901
	가임암소	1,023	1,085	1,195	1,208	1,203	1,213	1,277	1,272

※ 자료 : 통계청

경영비에도 못 미치는 수취가격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급육의 경우 저급육에 비해 하락폭이 낮아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육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전업농가들은 오히려 사육두수를 늘리는 기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급육 생산 위주의 소규모 농가들은 자연도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 한우사육두수와 농가수의 변화

한우가격 하락의 한 요인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한 한우 사육두수를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범 한우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사육두수를 줄이고자 암소자율도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구

제역 발생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우사육두수는 9월 현재 2백90만1천두로 2010년 9월 2백78만8천두에 비해 11만3천두가 증가하였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가 11만5천두가 살처분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3만두가 증가된 것이다.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는 가임암소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가임암소는 1백20만3천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만8천두(10.9%)나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가임암소는 구제역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1백27만2천두로 2010년 12월보다 6만4천두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현재의 가임암소 두수는 연간 송아지 생산 두수가 90만두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러나 국내 연간 도축두수는 60~65만두에 불

◇ 한우 암소 출하 동향 (암소도축률)

	2010년	'11.3	6	9	1~9
전체(A)	602,016	43,734	58,248	70,638	520,870
암소(B)	263,137	17,795	24,155	31,776	211,423
B/A(%)	43.7	40.7	40.5	45.0	40.6

과해, 생산규모가 도축규모를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육 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 추세는 암소도축률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10년 43.7%였던 암소도축률은 올해 9월 암소 자육도태와 소비촉진 활동 등을 통해 45%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9월 암소도축률은 40.6%로 가임 암소 증가의 원인이 낮은 암소도축률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농경련, GS&J와 같은 연구기관들은 이 같은 한우사육 두수 증가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그리고 국제곡물가 폭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조심스럽게 한우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2년, 장기적으로 3~5년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우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대내외적인 한우산업의 환경은 밝지 않다. 한·미FTA 연내 국회비준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이어 쇠고기 주요 수출국인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 등이 임박해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한우 시장 지키기는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다. 또한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제곡물가 폭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가중도 불가피해 한우농가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우산업이 민족산업으

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대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한우 가격 하락을 막아내기 위한 소비촉진이 필요하며, 적정두수 달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구제역 이후 2011년 하반기 이후 한우산업 안정화의 키워드는 소비촉진이며, 또 다른 키워드는 한우 사육두수 증가 추세를 진정시켜 적정 사육규모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한우산업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1) 한우 소비촉진 활동

전국한우협회와 농협, 한우자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구제역 이후 소비촉진 활동에 매진했다. 군납 한우고기 물량을 증가시켰으며, 암소 위주의 할인판매 행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한우자조금 소비홍보 행사를 판매위주 행사로 전환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농협 한우판매장을 활용한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도 추진했다.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을 시발로 연말까지 농협 전체 한우판매장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공격적인 소비촉진 활동은 한우 두수 줄이기가 한우산업 안정화의 우선 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한우가격 하락



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한우가격 폭락 사태는 일단 막아냈다고 할 수 있지만, 한우 사육두수와 공급량이 적정수준에 도달될 때까지 한우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비촉진 활동이 중요한 것은 향후 2~3년간은 생산이 소비를 웃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최대한 그 시기를 단축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비촉진 활동을 통한 한우두수 줄이기와 병행해, 한우산업은 빠른 시간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획생산 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정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2)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의 추진

한우 적정두수 유지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 국민소득 수준에서의 한우 적정두수를 250~280만두로 잡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도 가임암소 기준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 즉 암소도태 장려금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운영방안 변경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적정두수(90~110만)를 기준으로 보전금 지급액을 차등 적용해, 적정단계 이하로 가임암소가 줄

어 들면 30~40만원을, 적정두수를 넘어서면 10~15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아지생산기준도 현행 송아지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안정기준가격 185만원 기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빠르게 적정두수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는 암소 도태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미경산우 및 일정 개월령 이하 암소로 한정하고, 도태 대상 20만두를 목표로 두당 30~50만원선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정책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적정두수를 유지하려고 해도 지자체가 한우사육 신규 유입과 사육시설 확충을 추진하면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 FTA 대책의 핵심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한우산업의 경우 개축 및 방역시설 지원에 한정시키고 나머지 예산을 타 분야로 전용하는 등의 예산 배정 및 운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자체의 한우 사육시설 확대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의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한미FTA 대책과 관련한 생산비와 유통 비용 절감 방안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개량과 질병방역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전한 한우를 확대 생산해 나가는 한우농가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생산비 중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는 자가 배합사료(TMR) 시설 및 사료원료 공급 물류

기지 설치 등 사료전진 기지화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의 조사료 기반 육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값 절감을 유도하고, 물류기지 설치 운영을 통해 사료 원료곡물 공급가격 및 유통비를 줄여나감으로써 한우농가가 자발적으로 경영비 절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한우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축장·가공장·물류센터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도 예산 투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우사업단을 통한 영세농가의 출하체계 구축도 한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FTA 대책의 일환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접종비를 포함한 방역시설 지원 및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HACCP인증 수수료 등 농가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축소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3톤 이상 스키드로더의 면세유 지원,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이관 등 즉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전면 확대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 등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의 감시기능 강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 말은 한·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한 한우산업 대책 확립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

정화 기틀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촉발기금의 재원 확충(수입관세의 목적세화)을 비롯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한우농가가 함께 노력해 저율관세, 무관세 하에서도 수입쇠고기와 경쟁해 한우산업이 경제성과 차별성 그리고 소비자 신뢰성을 갖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